

# 寸口人迎脈診에 관한 文獻的 考察

김정인\* · 안훈모\*\* · 김길수\*\*\* · 구병수\*\*\*\*

: 대한의료기공학회, \*\* · \*\*\*\*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大韓醫藥氣功學會

## I. 緒論

診斷은 治療를 위해 疾病의 요인과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治療원칙과 구체적 治療방법을 확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韓醫學에서 의 診斷方法은 望·聞·問·切診의 四診을 기본으로 하며 그 중 切診은 의사가 손가락의 觸覺을 이용해서 환자를 눌러 봄으로써 질병의 자료를 획득하는 診斷方法이다. 예컨대 《素問·脈要精微論》에서, “身體 內部的 상태를 알고자 하는 자는 눌러본다”<sup>1)</sup> 라고 한 것과 같다.

切診의 方法으로 가장 대표적인 脈診은 古代로부터 전해져 오랜 時間동안에 걸친 臨床경험을 통하여 축적되고 체계화되어 이루어진 “以常衡變”, “以變識病”의 診斷方法으로 오늘날 韓醫學의 辨證施治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받고 있다. 환자의 脈을 의사의 손으로 짚어 환자의 몸 상태를 診斷한다는 것은 하나지만 脈診方

法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다양한 方法으로 變遷하여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脈診은 脈診部位에 따라 분류하는데 三部九候脈法, 寸口人迎脈法, 寸口脈法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寸口人迎脈은 가장 근본인 되는 한의학 서적인 黃帝內經의 곳곳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意義는 《難經 第二十三難》에 “經云 明知終始, 陰陽定矣, 何謂也? 然: 終始者 脈之紀也. 寸口, 人迎, 陰陽之氣通於朝使, 如環無端, 故曰始也. 終者, 三陰三陽之脈絕, 絕則死, 死各有形, 故曰終也”라 하며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寸口人迎脈은 臟腑 및 經絡의 허실을 診斷할 수 있는 方法으로 많은 효용가치를 가지는 脈診法이며 일부 임상에서 이를 활용하여 診斷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臨床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겠다.

이에 筆者는 첫째, 脈診의 起源 및 發展에 따른 寸口人迎脈診의 意義, 둘째, 寸口人迎脈診의 方法論에 관한 자세한 연구, 셋째, 寸口人迎脈診의 方法에 나타난 醫學의 原理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본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1) 裴秉哲 譯 :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4, p.182  
知內者按而紀之.

## II. 本論

### 1. 寸口人迎脈의 개요

寸口人迎脈法은 인체 내의 여러 部位 중 특히 人迎脈과 寸口脈의 두 부위의 脈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十二經絡의 病變을 파악하는 脈法이다

寸口人迎脈法에 대한 내용은 黃帝內經 素問·靈樞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 바 《靈樞·經脈》《素問·脈要精微論》, 《素問·陰陽別論》, 《素問·六節藏象論》, 《靈樞·終始》《靈樞·禁服》, 《靈樞·五色》, 《靈樞·論疾診尺》《素問·六節藏象論》 등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寸口人迎脈의 部位를 보면 人迎은 結喉 兩 頰의 動脈이며 足陽明胃經이 통하는 곳으로 陽을 주관하고, 寸口는 手太陰肺經이 지나는 곳으로 太淵穴 부위의 動脈의 搏動處이며 陰을 주관한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즉, 寸口人迎脈診法에서 疾病을 診斷하는 방법은 人迎脈과 寸口脈의 상대적인 편차는 인체내의 陰과 陽이 마찬가지로 편차가 나타난 불균형 상태라고 보았으며, 人迎과 寸口脈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人體 內의 陰과 陽 또한 調和를 이룬다고 하였다.

### 2. 寸口人迎脈의 起源

#### 1) 脈의 起源과 意義

##### (1) 脈과 脈診의 意味

脈은 說文에 派血, 脉 또는 脈이라 표현하고 있다. 派血의 의미는 血이 물의 分流와 같이 몸 전체에 고루 퍼져 있어 通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을 갖고 있고, 脉은 肉에 永을 습한 字로 肉은 肌肉으로 胃가 主하여 氣血을 資生하여 영구히 계속된다<sup>3)</sup>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脉은 內部로는 五臟과 相通하며 外部로는 體表, 肢節과 연결되어 內部五臟과 外部體表를 연결하는 氣血의 통로로 人體 內外에 相通하지 않는 곳이 없다. 또한 天地 陰陽의 變化에 따라 上下로 浮沈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運行하여 生命活動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脈을 “開天闢地, 生人之總司, 有常而不間斷者”<sup>4)</sup>라 하며 “命之本, 氣之神, 形之道<sup>5)</sup>”라고 하였다.

脈은 變化가 微細하여 外證에 비하여 識別하기 어려우며, 形氣·七情·外感·飲食·起居·나이·周圍環境 등에 依하여 變하고, 醫家마다 脈診에 대한 理論이 相異한 점이 있는데, 李中梓<sup>6)</sup>는 脈理를 ‘幽而難明’이라 하였고, 張世賢<sup>7)</sup>은 脈의 이치는 玄妙하고 精密하여 一言으로 설명을 하기는 어

3) 中央大辭典編纂委員會 : 中文大辭典, 台北, 中國文化大學, 1985, 卷7, p.993, p.1049

4) 喻昌 :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6, p.29

5) 劉完素 : 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14

6)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中國書店出版, 1987, p. 卷二, 三, pp.45-46

“脈之理微…許叔微: 脈之理 幽而難明”

7) 王叔和撰, 張世賢註 : 上揭書, p.卷之三.

“脈理精微 非一言可盡 然其要不越乎陰陽五行而已.”

2) 신광순: 《靈樞·經脈》의 診斷法인 寸口人迎脈診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2000, p.34

《素問》《靈樞》《黃帝內經太素》에서는 人迎脈은 喉嚨유돌근의 앞부분 경동맥의 足陽明胃經의 人迎穴의 動脈處를 지칭하였고, 寸口脈은 手太陰肺經上的 手腕關節에서 尺部사이의 太淵穴의 高骨下 動脈의 박동처를 寸口脈이라 하였다.

럽다 하였다.<sup>8)</sup>

## (2) 脈診의 原理

脈은 血의 府이다. 心臟은 血脈을 主管하고, 또 五臟六腑를 主管하는 器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늘 血의 脈 中에서의 運行을 반영하는 脈象은 心氣, 心血의 盛衰와 關聯될 뿐 아니라 五臟六腑의 生理 病理의 變化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脈中의 水穀精微는 血液을 따라 經絡에 유포되고 臟腑에 흘러 들어가고 四肢에 나뉘어진다. 즉 《素問·舉痛論》에서 “經脈은 끊임없이 흐른다.”고 말한 것과 같다. 五臟의 氣는 곧 血脈의 흐름에 따라 全身에 유포되며 臟腑계통의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脈象을 통해서 氣血운행의 狀況과 五臟의 氣의 盛衰, 正邪의 小腸 및 五臟사이의 均衡상태를 예측하여 治療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素問·脈要精微論》에서, “미묘한 것은 脈에 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sup>9)</sup>고 말한 것과 같다.<sup>10)</sup>

## (3) 脈診의 歷史

脈診의 起源은 B.C 7세기로 遡及되며 《史記》에 脈과 扁鵲에 관한 기록이 있고, 東漢(B.C 122년) 시대의 《淮南子·秦族訓篇》에 扁鵲이 脈診으로 病의 所生한 部位를 알았다 하였고, 《史記·扁鵲倉公列傳》의 倉公의 診療醫案 中에 脈診으로 厥陰脈의 異常이 나타나는 疝症을 診斷한 기술이 있으며, 1973년 마왕퇴 한묘(B.C 168)의 출토에서 중 《脈法》, 《陰陽脈死候》는 脈象을 논술한 최초의 診斷에 관한

專門書籍이다.<sup>11)</sup>

그리고 脈診의 방법을 보면 《內經》에서는 十二經診法, 寸口人迎脈診法, 三部九候診法, 尺部 觸診法, 寸口脈診法, 《難經》에서는 三部九候法, 陰陽法, 輕重法, 六十首, 《傷寒論》에서 寸口脈診法, 趺陽脈診法, 太谿脈診法 등이 있다. 한편, 馬王堆漢墓(B.C 168년)출토 醫書중 《脈法》은 ‘相脈之道’로서 診脈의 목적, 砭刺의 禁忌, 診脈의 部位 및 방법, 脈象과 疾病의 관계 등을 논술하고 있으며, “他脈盈, 此獨虛……他脈靜, 此獨動, 則主病”의 문구는 淳朴한 先秦時代의 比較脈診法이다. 馬繼興<sup>12)</sup>은 黃帝內經의 寸口診脈法, 三部九候診脈, 및 寸口와 人迎을 對比하는 脈診법, 《傷寒論》에서는 寸口맥과 趺陽脈을 비교하는 診脈法은 《脈法》의 比較脈診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다 하였다.

馬王堆의 出土 醫書인 《脈法》에는 比較脈診의 기록과 《陰陽十一脈灸經》에는 是動則病의 文句 뒤 病候를, 劉<sup>13)</sup>는 “是動은 某脈의 搏動部位가 動하면 某經의 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靈樞·經脈》에서도 是動則病의 文句 뒤에 各 經脈의 病候와 寸口脈, 人迎脈의 比較盛衰에 따른 寸口人迎脈診法이 있고, 《素問·脈要精微論》, 《素問·陰陽別論》, 《靈樞·終始》《靈樞·禁服》, 《靈樞·五色》, 《靈樞·論疾診尺》 등에 寸口人迎脈診의 의미, 계절에 따른 脈象變化, 平人의 脈候, 針灸補瀉法, 脈候에 따른 針·灸·刺絡·藥物 等の 治療方法등이 記載되어 있다.<sup>14)</sup>

8) 신광순 : 前掲書, pp.31~32

9) 裴秉哲 譯 : 前掲書, p.182

10) 백정의 : 脈診의 起源과 內經의 脈診에 관한 研究(I), 診斷學會誌, 1988.9, pp.232~233

11) 周一謀·蕭佐桃 :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pp.42~45

12) 馬繼興 :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295~297

13) 劉孔藤 : 經絡辨證概論, 夏門, 夏門大學出版社, 1989, p.70

#### (4) 脈診 方法의 變遷

최초의 脈診方法은 아마 十二經을 모두 診察하는 것으로, 脈의 動靜만을 살폈던 것 같다. 즉 《素門·方盛衰論》에 “論有大方……按脈動靜”이라 하고, 《靈樞·經脈篇》에 “脈之卒然動者 皆邪氣居之”라 하고 每條經의 起止를 敘述한 후에 또 “是動則病……”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十二經의 動靜을 관찰하는 것이 당시의 一種 診脈方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三部九候의 診脈法은 그 부위가 頭部의 兩額 兩頰과 耳前, 手部의 太陰 陽明 및 少陰, 足部의 厥陰 少陰 및 太陰이다. 頭部는 頭角 口齒 및 耳目의 病變을 반영하고 手部는 心, 肺 및 胸中의 病變을 반영하고, 足部는 肝·腎 및 脾胃의 病變을 반영한다.<sup>15)</sup>

그 다음은 人迎·寸口의 診脈法이다. 人迎은 頸部兩側에 있고, 寸口는 手太陰脈의 박동처이다. 《靈樞·四時氣篇》은 “氣口候陰 人迎候陽”이라 하고, 《禁服篇》에서는 “寸口主中 人迎主外”라 했다. 氣口는 곧 寸口이며, 陰主內하고 陽主外한다는 말과 뜻이 같다. 春夏에는 人迎이 微大하고, 秋冬에는 氣口가 微大하다. 만약에 人迎이 過大하면 陽盛이고, 氣口가 過大하면 陰盛이다.

끝으로 寸口脈診法이다. 《素門·五臟別論》에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于寸

口”라 표현되어 있으며 단지 寸口의 脈만 診斷해도 五臟六腑의 變化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以後의 東醫學 寸口脈診方法은 여기서 발전된 것이다.<sup>16)</sup>

#### 2) 寸口人迎脈診의 意義

脈診의 歷史를 살펴봤을 때 三部九候脈診이 人體를 上·中·下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部位에서의 搏動處를 대표로 삼아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단순 部位別 脈診이라고 한다면 寸口人迎脈診은 상대적 개념을 이용하여 陰陽, 表裏, 上下, 臟腑, 經絡의 虛實 등을 判別하는 관계로 발전된 脈法이며 이는 後代에 사용되는 寸口脈診의 각 部位別 상대성에 대한 단초가 되었다.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寸口脈診은 寸·關·尺 部位에서 脈象에 따라 病이 든 臟腑를 判단하고 또 그러한 脈象에 따라 診斷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脈診의 형태가 흘러오는데, 寸口인영맥진은 그 중간과정에 있는 脈診이지만 寸口와 人迎맥의 상대적 편차를 이용해 臟腑의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을 判別하는 방법이 있어서는 오히려 寸口맥진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 두 맥의 비교만으로 명확하고 간단한 診斷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상당히 長期間의 鍼의 운용지침이 된 것 같지만 五行說의 발전과 毫鍼의 발달, 刺絡의 衰微와 더불어 衰亡해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寸口人迎脈診은 三部九候脈診에서 寸口脈診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脈診法으로 五行의 개념보다는 陰陽의 개념이 강조되며, 보다 細分化되어 太陰·少陰·厥陰과 太陽·少陽·陽明의 三陰三陽 개념으

14) 신광순 : 前掲書, pp.32~33

15) 裘秉哲 譯 : 前掲書, p.226

《素問·三部九候論》

帝曰：何謂三部。

岐伯曰：有下部，有中部，有上部，部各有三候。三候者，有天有地有人也，必指而導之，乃以爲眞。上部天，兩額之動脈；上部地，兩頰之動脈；上部人，耳前之動脈。中部天，手太陰也；中部地，手陽明也；中部人，手少陰也。下部天，足厥陰也；下部地，足少陰也；下部人，足太陰也。故下部之天以候肝，地以候腎，人以候脾胃之氣。

16) 洪元植 編著 :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p76

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 3. 寸口人迎脈의 내용

#### 1) 部位

##### (1) 內經

寸口人迎脈에서 人迎은 人迎脈이고 寸口는 氣口 또는 脈口<sup>17)</sup> 등으로 쓰여져 人迎은 足陽明經에 속하는 結喉 兩傍의 動脈處로서 足陽明客氣所發處는 手腕撓骨 內側의 動脈 부위의 搏動部<sup>18)</sup>를 말한다.

人迎脈의 부위는 《素問·陰陽別論》에서 三陽을 在頭한다<sup>19)</sup> 하였고 《素問·太陰陽明論》에 陽明은 表로, 三陽에 氣를 보낸다<sup>20)</sup>고 하여 三陽의 氣는 足陽明胃氣를 本<sup>21)</sup>으로 하며 《靈樞·寒熱病》편에 人迎은 頸側의 動脈으로 嬰筋之前에 있으며 足陽明脈<sup>22)</sup>이라 하였으므로 人迎脈의 부위는 頸側의 動脈이 나타나는 足陽明胃經의 人迎穴을 말한다. 寸口脈의 부위는 《素問·陰陽別論》에 三陰은 在手한다<sup>23)</sup> 하였고 《素問·太陰陽明論》에 足太陰은 三陰으로 氣를 보내므로 三陰의 氣는 足太陰脾氣를 本<sup>24)</sup>으로 한다. 그러나 足太陰脾經은 手로 유주하지 않으나 五臟別論에 五味는

胃에 藏하여 五臟氣를 養하며 氣口로 變見하므로 氣口도 역시 太陰<sup>25)</sup>이라 하였고 三陰은 在手한다 하였으므로 三陰은 氣口 즉 寸口脈을 말한다. 따라서 人迎 寸口脈은 頸側의 動맥인 人迎脈과 寸口脈을 按脈하여 상응 관계를 살피는 脈法이다<sup>26)</sup>.

##### (2) 後代 醫家說

후대 王叔和등이 寸口人迎脈은 寸口脈의 左右를 가리킨다고 하여 左人迎 右氣口 脈診法이라 설명된다. 《素問·五臟別論》에서 “五臟六腑의 氣味는 모두 胃에서 出하는데 變見於氣口<sup>27)</sup>”라 하였고 《靈樞·五閱五使》篇은 “脈口於氣口”라 하고 《素問·經脈別論》篇은 “寸口成寸하고 以決死生<sup>28)</sup>”이라 하여 단지 寸口の 脈만 진단해도 五臟六腑의 變化를 알 수 있다 하였고 《難經》에서 “獨取寸口한다<sup>29)</sup>”하여 寸口の 脈만 진단해도 脈의 變化는 알 수 있다 하였다.<sup>30)</sup>

또, 王叔和의 《脈經》에서는 左手 寸關尺의 關部를 人迎脈, 右手 寸關尺의 關部를 寸口脈이라 하였고, 《脈訣》에서 左手의 人迎脈에서 外感의 溫風寒을 진단, 右手의 氣口脈에서 內傷의 燥濕暑를 진단한다 하였고, 《內外傷辨惑論·辨脈<sup>31)</sup>》에서 左手를 人迎, 右手를 寸口라 하여 內傷과 外感을 구분하였다. 또 明代의 《瀕湖脈學》, 清代의 《三指禪》《脈理會參<sup>32)</sup>》등에서도 左

17)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上卷, 1982, p. 57

氣氣口之義 其名有三 手太陰肺 肺經脈也 肺主氣 氣之盛衰 見于此 故曰氣口, 肺朝百脈 脈之大會 聚于此 故曰脈口 脈出太淵 其長一寸九分 故曰寸口 是名屬三 其實卽一耳.

18) 羅慶燦 : 脈의 發生과 診斷法의 變化,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2, p. 28

1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 研究院, 1981, p. 248

20) 上揭書 p. 63

21) 上揭書, p. 229

22) 上揭書, p. 229

23) 上揭書, p. 26

24) 上揭書, p. 84

25) 上揭書, p. 37

26) 金泰熙 :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研究, 서울, 熙大學校 大學院, 1987, p. 16

27) 襄秉哲 譯 : 前揭書, p. 145

28) 洪元植 : 前揭書, p. 48

29) 扁鵲 : 難經. 校正圖註難經, 서울, 翰林, 卷一, 1974, p. 1

30) 金泰殷·金泰熙 : 人迎氣口脈에 對한 內經과 後代 醫家說과의 比較 研究, 尙志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內科學會誌, 1994, p. 53

31) 李東垣 : 東垣醫集·內外傷辨惑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9~10

32) 餘之儀 : 脈理會參,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

手關部를 人迎脈, 右手關部를 氣口脈이라 하였고, 《脉義簡摩<sup>33)</sup>》에서 左手人迎脈, 右手氣口脈說은 軒岐에서 기원하며, 叔和에서부터가 아니다하였는데, 趙<sup>34)</sup>는 《中醫脈診學》에서 근거가 없다 하였다.

《醫學正傳<sup>35)</sup>》에서는 《活人書》의 左人迎, 右氣口說을 患者와 醫者의 左右手의 해석의 차이로 설명하였고, 《四診抉微<sup>36)</sup>》에서는 寸口, 氣口, 脈口는 兩手를 지칭하며 兩手의 寸口는 寸口가 되고 右手는 氣口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傷寒論》《金匱要略》에서의 寸口는 三部를 총칭한다 하였다.

그리고 明代 《景岳全書》《長氏類經》등에서 左手人迎脈, 右手氣口脈을 《素問》《靈樞》의 各篇은 寸口人迎脈이 左右의 구분이 아니고, 上下의 이치로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비판하였고 《醫宗必讀》에서 左手人迎脈, 右手氣口脈을 病因의 진단영역에 관하여 비판하였고 清代 《四診抉微<sup>37)</sup>》《醫宗金鑑》에서 左手人迎脈, 右手氣口脈은 《內經》의 經지에 반하며 “自晉至今, 以訛傳訛”하였다.<sup>38)</sup>

清代 郭<sup>39)</sup>은 《脉如》에서는 첫째 頸의 人迎, 手の 太淵說, 둘째 左手의 人迎, 右手의 寸口說 등 각각에 의미가 있다 하였고, 元代 《難經本意》에서는 古法에서 結喉 兩旁의 動脈을 人迎이라 한다 하였고, 《醫

編<sup>40)</sup>에서 人迎脈은 頸, 寸口脈의 手の 部位가 《內經》의 의미에 부합하지만, 後世에는 古代의 三部比較脈診法을 廢棄하였기 때문에 左手의 關脈을 人迎脈, 右手의 關脈을 氣口脈으로 改修하였으며, “經義無異, 部位不同”한다 하였다.

### (3) 寸口脈과 人迎脈의 意味

#### ① 陰陽관계

《靈樞·四時氣篇》에는 “氣口는 陰을 侯하고, 人迎은 陽을 侯한다.”<sup>41)</sup>고 하였다. 人迎은 陽經에 속하며, 表를 주관하는데, 陰氣는 秋冬에 왕성하다. 그러므로 정상적이라면 寸口人迎脈은 四時의 陰陽氣와 小腸이 상응해야 한다. 즉 春夏에는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약간 크고, 秋冬에는 寸口脈이 人迎脈보다 약간 크다. 그래서 《靈樞·禁服》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寸口는 內部를 주관하고, 人迎은 外部를 주관한다. 兩者가 均형이 맞으면 그 脈의 크기가 서로 같게 된다. 봄과 여름에는 人迎이 약간 크고, 가을과 겨울에는 寸口가 약간 크다. 이러한 사람을 平人이라고 한다.”<sup>42)</sup> 라고 설명하였다.

#### ② 表裏관계

《素問·血氣形志論》에 足太陽과 少陰은 表裏이고 少陽 厥陰이 表裏이고, 陽明, 太陰이 表裏이며 이것이 足陰陽이고, 手太陽과 少陰은 表裏이고 少陽과 厥陰이 表裏이고 陽明, 太陰이 表裏이며 이는 手陰陽이다<sup>43)</sup>

社, 1997, p.91

33) 周學海 : 周學海醫學全書·脉義簡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17

34) 趙恩儉 :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p.341

35)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23

36) 林之辭 : 四診抉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83~84

37) 上揭書, pp.211~214

38) 金光善 : 前揭書, p.34

39) 郭元峰 : 脉如(下卷), 上海, 上海古籍書店, 寸口人迎脈診

40) 何夢瑤 : 醫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500~501

41) 裴秉哲 譯 : 前揭書, p.221

42)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1987, p.60

43) 洪元植 : 前揭書, p.52

足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足之陰陽也, 手太陽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謂手

하였으므로 太陽과 少陰, 少陽과 厥陰, 陽明과 太陰은 表裏로 되어 있으니 寸口人迎脈은 一盛은 少陽經과 厥陰經, 二盛은 太陽經과 少陰經, 三盛은 陽明經과 太陰經의 表裏關係로 짝지어져 있다.

이를 《內經註釋書》에서 張志聰은 “三陽爲經 二陽爲維 一陽爲遊部 蓋陽明經氣維於身之前 太陽經氣經於身之後 少陽之氣爲旅行出入之樞也44)”라 하였다.

《難經·第十八難》에 脈有三部 部有四經이 있는데 三部는 寸關尺이고 部有四經은 部에는 四經이 있으며 手에는 太陰·陽明이, 足에는 太陽·少陰이 있어 上下部를 이루는데 手太陰·陽明은 金이고 足少陰·太陽은 水로 金生水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太陽·少陰은 水이므로 下行하여 上行하지 못하므로 下部에 있게 된다. 足厥陰·少陽은 木으로 手太陰·少陰은 火를 生하는데 火는 炎上하여 下하지 못하므로 上部에 있다. 手心主少陽火는 足太陰陽明土를 生하는데 土는 中宮을 主하므로 中部에 위치한다45) 하였다.46)

## 2) 平人의 定意

《靈樞·經脈篇》에서는 經脈은 死生을 決定하고 百病을 處理하는 곳이며 虛實을 調節할 수 있는 곳이므로 不可不通47)이라 하였고 《靈樞·終始篇》에서는 經脈을 紀

綱으로 하여 脈口 人迎脈으로 陰陽의 有餘不足과 平 不平을 알면 天道가 畢한다48) 하였는데 脈口는 太陰經이 經過하고 人迎은 陽明經이 循環하는 곳이고, 肺는 모든 脈이 모이는 곳이고, 胃는 水穀이 모두 모이는 곳이므로, 脈口와 人迎의 兩側脈은 五臟의 陰과 六腑의 陽의 虛實과 盛衰를 살펴볼 수 있어 人체 陰陽의 平衡유지의 與否로 이해할 수 있다.49)

《靈樞·終始篇》을 보면 平人이란 病들지 않은 者로서 病들지 않은 것이 人迎氣口脈의 四時에 應한 것50)이라 하며 자연에 應하여 人體 陰陽의 平衡을 유지하는 者를 平人이라 표현하였다.

四時에 應한다고 하는 것은 四時氣逆의 變化에 따라 脈도 上下로 變化하게51) 되고, 春夏에는 陽氣微盛 秋季에는 陰氣微盛하게 되므로 春夏에는 人迎脈이 微大하게 되고 秋冬에는 寸口脈이 微大하게 된다52) 53) 54)는 것이다.

《靈樞·終始篇》에서는 “이른바 平人이란 病이 없다는 뜻이다. 病이 없는 者는 脈口(즉 寸口)와 人迎이 四時에 應하고 上下가 相應하여 함께 往來한다. 六經의 脈이 結動하지 않고, 本末의 寒溫이 서로 守司하고, 形肉과 血氣가 반드시 均衡이 맞는 사람을 平人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만약 人

之陰陽也  
44) 陳夢雷 : 醫經註釋(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二冊), 1988, p.91  
45) 扁鵲 : 前揭書, p.1  
脈有三部 部有四經 手有太陰陽明 足有太陽少陰爲 上下部何謂也...手太陰陽明濕也 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少陽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下 故爲 上部 手心主少陽火生足太陰陽明土 土主中宮 故 在中部也.  
46) 金泰殷·金泰熙. : 前揭書, p.157  
47) 洪元植 : 前揭書, p.229

48) 上揭書, p.300  
49) 辛광순 : 前揭書, p.37  
50) 洪元植 : 前揭書, p.226  
51) 金泰熙 : 前揭書, p.11  
52) 洪元植 : 前揭書, p.226.  
春夏人迎脈大 秋冬寸口微大  
53) 上揭書, p.226  
“脈口人迎應四時也, 上下相應而俱往來也, 六經之脈 不結動也, 本末之寒溫相守司也, 形肉血氣必相稱 也, 是謂平人”  
54) 金泰殷·金泰熙. 人迎氣口脈에 對한 內經과 後代 醫家說과의 比較 研究. 尙志大學校 大學 院 韓醫學科. 內科學會誌. 1994. p.154

迎과 寸口脈이 서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病變이 脈象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대체로 말하면, 人迎脈이 홀로 왕성하면 病이 三陽 腑에 있고, 寸口脈이 유독 왕성하면 질병이 三陰의 臟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太陰은 三陰에 氣를 運行하고, 陽明은 三陽에 氣를 運行하기 때문이다.<sup>55)</sup>

### 3) 平脈과 躁脈의 의미

脈이 躁動하면 病邪가 盛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人迎脈이 1,2,3배로 커지면서 躁動하면 病이 足의 三陽經 뿐 아니라 手의 三陽經에까지 侵入한 것이며, 만약 4배이상 커지면서 數大해지면 病이 手足六陽經에 모두 極盛하여 陽邪가 六腑에 넘쳐 溢陽이 된다는 것이다. 陽이 外部를 주관하는데, 陽이 極盛하면 內部の 六陰經을 막는다. 그래서 外格이라고 한다.

또 脈口의 크기가 1,2,3배로 늘어나되 躁動하면 病이 足의 三陰經에 있을 뿐 아니라, 手의 三陰經에도 侵入하였음을 사사한다. 만약 脈口의 크기가 人迎에 비해 4배 이상이면 數大하면 手足의 六陰經에의 偏盛이 극대화되어 陽經과 서로 通하지 않게 되며, 이것을 “溢陰”이라고 하며 內關이라는 말을 쓴다. 外部에 溢陽하든 內部에 溢陰하든을 막론하고, 內關外格은 모두 질병이 엄중한 것이므로 사망하게 된다.<sup>56)</sup>

또한 人迎脈이든 氣口脈이든 大하면서 躁脈이면 病이 足經絡에서 手經絡으로 病이 된 것<sup>57)</sup>이다.<sup>58)</sup> 여기서 躁者는 陰中之動

象<sup>59)</sup>이기 때문이다.<sup>60)</sup>

### 4) 1盛, 2盛, 3盛의 意味

人迎脈과 氣口脈의 비교에 있어서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盛大하면 病이 足三陽에 있는데 一倍가 大하면 少陽에, 二倍가 大하면 太陽에, 三倍가 大하면 陽明에 있다.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盛大하면 病이 足三陰에 있는데 一倍가 大하면 厥陰에, 二倍가 大하면 少陰에, 三倍가 大하면 太陰에 있다.<sup>61)</sup>

人迎脈이 寸口脈의 四배가 되며 大脈이고 또 數脈일 때 溢陽이라 하여 陽이 넘쳐 外가 內부를 지켜주므로 外格이라 하며, 寸口脈이 人迎脈의 四배가 되며 大脈이고 또 數脈일 때 溢陰이라 하여 陰이 넘쳐 內가 閉鎖되므로 內關이라 하며 內關은 陰陽이 不通하므로 不治하여 死하게 된다 하였다. 그리고, 寸口人迎脈이 함께 四倍以上으로 될 때 關格이라 하여 陰陽이 따로 떨어져 分散된 상태인 것이고 四倍以上이면 不治하여 死하는 것<sup>62)</sup>이다.

病在足少陰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

58) 金泰殷·金泰熙: 前掲書, p.152

59) 陳夢雷: 前掲書, p.68

60) 金泰殷·金泰熙: 前掲書, p.155

61) 洪元植: 前掲書, p.27

六節藏象論:

故人迎一盛病在少陽 二盛病在太陽 三盛病在陽明.... 寸口一盛病在厥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人迎四盛 以上爲格陽....寸口四盛以上爲關陰....人迎與寸口俱盛 四倍以上爲關格 關格之脈不能極於天地之精氣即死也.

62) 上掲書, p.226

靈樞 終始篇

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人迎四盛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脈口四盛 且大且數者 名曰溢陰 溢陰者內關 內關不通 死不治....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 名曰關格 關格者 與之短

55) 백정의: 前掲書, pp.234~235

56) 上掲書, pp.235~236

57) 洪元植: 前掲書, p.300

靈樞 終始篇:

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以上에서 보면 人迎脈과 氣口脈이 배하거나 盛하거나 하는 것은 經絡도 같으며, 王은 一盛은 一倍를 의미한다<sup>63)</sup>하여 倍와 盛은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다.<sup>64)</sup>

즉 一盛, 二盛, 三盛이란 兩者를 비교할 때 一, 二, 三배가 된다는 것이다.

## 4. 寸口人迎脈의 응용

### 1) 診斷상의 응용

내경에서 촌구인영맥을 통해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곳에서 조금씩 군데군데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靈樞·四時氣篇》에 “人迎脈은 陽을 候하고 氣口脈은 陰을 候한다” 《靈樞·終始篇》에 “脈口人迎으로 陰陽의 有餘 不足을 알 수 있다.”하였고 《禁服篇》에 “寸口는 主中하고 人迎은 主外하며, 氣口에 異常이 있으면 病이 內部에 있고 人迎에 異常이 있으면 病이 外部에 있는 것”이라 하였다.

人迎脈은 三陽의 氣를 알 수 있고 陽에 속하며 外, 表를 主하고 六腑의 상태를 알며 氣口脈은 三陰의 氣를 알 수 있고 陰에 속하며 內, 裏를 主하고 五臟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크면 外傷이며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크면 內傷이라 하였다. 外感風寒은 모두 有餘한 증이며 內傷飲食 및 飲食不節 勞役不節은 모두 不足之病이다. 따라서 外感風寒은 陽이며 內傷은 陰이고 裏가 되는데 左側은 陽이므로 主表하고 右側은 陰이므로 主裏한다<sup>65)</sup>하였다.

期

63) 洪元植 : 前掲書, p.34

64) 金泰殷·金泰熙 : 前掲書, p.155

65) 李杲 : 內外傷辨, 東垣十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29

### (1) 疾病의 進行狀態 判斷

환자의 寸口脈을 진맥하여 만약 滑, 小, 緊하면서 沈하면 病情이 날로 加重되는데 이는 六腑에 病이 있는 것이다. 寸口脈이 浮滑하면 病이 점차 輕減되고, 人迎脈이 沈하면서 滑하여도 病情이 점차 輕減된다. 寸口脈이 滑하면서 沈하면 病이 날로 加重되는데 이는 五臟에 病이 있는 것이다. 人迎脈이 滑盛하면서 浮하여도 病이 날로 加重되는데 이는 六腑에 病이 있는 것이다.

脈象의 浮沈 및 人迎脈과 寸口脈 脈氣의 크기가 같으면 病이 잘 낫지 않는다. 病이 五臟에 있을 경우에 沈하면서 大한 脈象이 나타나면 쉽게 낫는다. 만약 沈하면서 小한 脈象이 나타나면 (陰氣가 부족한 것이므로 치유하기 어려운) 逆證이다. 病이 六腑에 있을 경우에 浮하고 大한 脈象이 나타나면 (正氣가 充滿한 것이므로) 쉽게 治愈된다. 만약 浮하고 小한 脈象이 나타나면 (正氣가 虛하여 邪氣에 저항할 힘이 없는 것으로서 治愈하기 어려운) 逆證이다. 人迎脈이 盛하고 堅實하면 寒邪에 손상된 것이고, 寸口脈이 盛하고 堅實하면 飲食에 損傷된 것이다.<sup>66)</sup>

### (2) 虛實의 診斷

人迎氣口脈의 變化에서 보면 《靈樞·經脈篇》에 手太陰經脈은 氣有餘한 즉 肩背

66) 婁秉哲 譯 :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1994, p.384

靈樞 五色篇:

雷公曰 病之益甚與其方衰, 如何? 黃帝曰 外內皆在焉, 切其脈口, 滑小緊以沈者, 病益甚, 在中. 人迎氣大緊以浮者, 其病益甚, 在外. 其脈口浮滑者, 病日進. 人迎沈而滑者, 病日損. 其脈口滑以沈者, 病日進, 在內. 其人迎脈滑盛以浮者, 其病日進, 在外. 脈之浮沈及人迎與寸口氣小大等者, 病難已. 病之在藏, 沈而大者, 易已, 小爲逆. 病在府, 浮而大者, 其病易已. 人迎盛堅者, 傷於寒, 氣口甚堅者, 傷於食.

痛, 風寒, 中風汗出, 小便數하며 氣虛者는 肩背痛寒하며 少氣하고 숨이 가쁘며 溺變色한다. 手陽明大腸經도 氣有餘한즉 熱腫하고 虛한즉 寒慄不復한다<sup>67)</sup>라고 하였으나 그의 經絡의 虛實 病證은 經絡의 흐름에 따라 經絡에 발생되는 是動病과 각 臟腑에 病이 발생되어 나타나는 所生病의 증상만 열거하고 盛虛는 언급이 없다. 여기서는 또 手足經의 구분을 躁脈에 의해 구별하지 않았다.<sup>68)</sup>

《靈樞·經脈篇》에서는 人迎과 기구를 經脈의 虛實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寸口는 陰이 되고 人迎은 陽이 된다. 臟의 盛虛는 寸口에서, 腑의 盛虛는 人迎에서 확인할 수 있다. 診脈時 寸口와 人迎을 비교분석하면 病이 臟에 있는지 腑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李杲의 《內外傷辨惑論》에는 人迎과 氣口를 서로의 크기를 비교하여 診斷을 한다고 했다.<sup>69)</sup>

## 2) 治療상의 응용

人迎脈이 盛한 것은 陽 즉 外에 邪氣가 有餘한 것으로 瀉法爲主로 取穴하고, 氣口脈이 盛한 것은 陰 즉 內에 精氣가 不足한 것으로 補法위주로 取穴한 것을 알 수 있다.

67) 洪元植 : 前掲書, pp.229~235

### 經脈篇

肺手太陰之脈, 起于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 屬肺, 從肺系橫出腋下, 下循膈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 出其端. 是動則病肺脹滿膨而喘欬, 上盆中痛, 甚則交兩手而脅, 此爲臂厥. 是主肺所生病者, 欬, 上氣喘渴, 煩心 滿, 膈臂內前廉痛厥, 掌中熱. 氣盛有餘, 則肩背痛. 風寒 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 爲此諸病, 盛則瀉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盛者, 寸口大三倍于人迎, 虛者, 則寸口反小于人迎也.

68) 金泰殷·金泰熙 : 前掲書, p.157

69) 羅慶燦, 黃帝內經의 脈理論과 診脈法の 變化에 관한 연구, 1993.3. p26

《靈樞·終始篇》에 의하면 寸口人迎脈의 비교에 따라 人迎이 一倍 盛하면 足少陽에 疾病이 있으며, 이때에는 瀉足少陽 補足厥陰하며, 一盛하고 躁動하면 陽中の 陽이므로 手少陽에 疾病이 있고 瀉手少陽 補手厥陰하며, 二瀉一補하고, 一日一回 治療한다. 또 《靈樞·經脈》에 의하면, 人迎이 寸口에 비하여 一倍 盛하면 實證이고, 人迎이 寸口보다 小하면 虛證이다 하였다. 나머지 十一經도 이에 準하여 類推할 수 있다.<sup>70)</sup>

寸口人迎脈診에 의하여 盛衰에 따른 疾病의 所在 및 虛實을 파악하고, 人迎脈이 寸口脈에 비하여 盛하고 脈象이 緊盛하면 痛痺가 되므로 分肉間을 刺針하고, 大脈은 氣血不調에 起因하므로 血絡을 취하거나 調和의 藥을 服用하고, 陷下하여 不起하는 것은 寒滯로 因한 것이므로 灸治療法을 施行하고, 氣血의 盛衰로 因한 病이 아니고 단지 經絡에 留滯하여 생긴 病은 해당 經脈에 針灸 혹은 藥으로 治療한다.

寸口脈이 人迎脈에 比하여 盛하면 外實中虛하므로 脹滿, 寒中, 食不化하고, 虛하면 眞陰不足해지므로 熱中, 出糜, 少氣, 溺色變하고, 緊脈은 痛이 되어 先刺後灸하여 經을 通하면 寒은 쉽게 除去되며, 脈陷下한 것은 血에 寒이 있는 것이므로 血結하여 鬱滯하므로 마땅히 灸한다.

한편 一倍, 二倍, 三倍의 過度하지 않아 된 질병은 단지 輕重에 불과하므로 致病의 本末을 살피고, 寒熱을 分別하고, 疾病의 臟腑所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sup>71)</sup>

《靈樞·終始篇》에 “少氣者는 氣口人迎 모두 함께 小하고 寸口와 尺의 調和가 맞지 않으면 이는 陰陽氣가 모두 부족한 것이니 陽을 補하면 陰氣가 衰竭하고, 陰을 補하면

70) 신광순 : 前掲書, p.39

71) 上掲書. p.41

陽氣 역시 脫한다. 이러한 증후에 甘藥으로 調補하여 治療되지 않으면 補重의 藥劑로서 治療하여야 한다. 艾灸는 眞陰耗竭시키고 治療效果가 不速하므로 사용하지 말며, 만약에 瀉法을 行하면 五臟의 精氣가 모두 損壞된다<sup>72)</sup> 하였고, 《熱病篇》에 “熱病 三日에 氣口脈이 靜하고 人迎脈이 躁하면 病邪가 表인 陽經에 있으니 五十九刺를 취한다 하였다. 그 熱을 瀉하고 身熱이 甚하나 陰陽脈 모두 靜하면 刺針하지 말고 刺針할 경우는 급히 鍼을 놓되 膿이 안나고 邪氣鬱結된 것은 邪를 泄시키고 刺針하지 말라는 것은 死症<sup>73)</sup>이라 하였고 熱病 七日 八日에 脈口動하고 喘하며 短자는 汗沮自出하니 急刺<sup>74)</sup>해야 한다.”하였다. 《靈樞·禁服篇》에 “人迎氣口脈이 盛하여 實하면 瀉하고 虛하면 補하고 緊痛할 때는 分肉을 取하여 刺針하고 代脈이면 絡脈의 鬱血을 瀉血하고 藥을 쓰며 陷下된 것은 灸를 하고 人迎氣口 모두 虛實이 없을 때는 其經을 취하여 刺針하며 이를 經刺<sup>75)</sup>”라 하였다. 《小鍼解篇》에 “寸口가 虛할 때는 補法으로 實하게 하고 盛하면 瀉한다<sup>76)</sup>” 하였고 《陰陽二十五

人篇》에는 “人迎寸口脈으로 陰陽氣를 조절 하는데 人體의 上部의 氣가 有餘한 者는 下部에 取穴하여 氣를 誘導하고 上部의 氣가 不足한 者는 留針하여 氣를 밀어 올린다<sup>77)</sup>”고 하였다.

또 補瀉의 方法에 있어서 《醫經註釋》에서 馬는 “人迎一盛하면 病이 足少陽膽經에 있는데 膽과 肝은 表裏이기 때문에 膽實이면 肝虛해 진다 따라서 당연히 足少陽膽經을 瀉하고 足厥陰肝經을 補한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와같이 한다<sup>78)</sup>”하여 治療法을 설명하고 있다.

이 人迎脈이 盛할때는 一盛 二盛 三盛 모두 동일하게 陽經을 瀉하고 陰經을 補하며 二穴을 瀉하고 一穴을 補하며, 氣口脈이 盛할때는 一盛 二盛 三盛에 관계없이 모두 陰經을 瀉하고 陽經을 補하며 二穴을 補하고 一穴을 瀉하고 있다.

이에 《醫經註釋》에서 張은 “陽은 두 번 瀉하고 陰은 한번 瀉하는 것은 陽은 항상 有餘하고 陰은 항상 不足하기 때문이며, 陽은 두 번 補하고 陰을 한번 補하는 것은 陽은 가히 盛하나 陰은 不可盛也<sup>79)</sup>”이라 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sup>80)</sup>

鍼治療 回數는 人迎이 盛하든 氣口가 盛하든 一盛時는 一日一回 取하고, 二盛時는

72) 洪元植 : 前揭書, p.226  
終始篇

氣者 脈人迎口小而 不稱尺寸也 如是者 卽陰陽俱不足 補陽卽陰竭 寫陰足陽脫如是者 可將而甘藥 不可 陰以之齊 如此者 弗灸 不已者 因而寫之 卽五臟 氣塊矣.

73) 上揭書, p.254

熱病篇: 熱病三日而氣口靜 人迎躁者 聚之諸陽五十 口刺 以寫熱...身熱甚 陰陽皆靜者 勿刺也 其可 刺者急取之 不汗出卽泄 所謂勿刺者有死徵也.

74) 上揭書, p.254

熱病篇: 熱病已得汗出 而脈尙躁 喘沮復熱 勿刺膚 喘甚者死

75) 上揭書, p.291

禁服篇

盛則寫之 虛則補之 緊痛則 取之 分肉 代則取血絡 沮 欲藥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名曰經刺

76) 上揭書, p.211

小鍼解篇: 氣口虛而 當補之也 氣口盛而 當寫之也

77) 上揭書, p.315

陰陽二十五人篇

按其寸口人迎 以調陰陽...其有餘於上者 導而下之氣 不足於上者 推而休之 其氣留不止者 因而迎之 必明於經隧 乃能持之

78) 陳夢雷 : 前揭書, p.69

人迎一盛 病在足少陽膽經 則膽與肝爲表裏 乃膽實而 肝虛也 當瀉足少陽膽經 而補足厥陰肝經...由此 推之

79) 上揭書, p.70

補瀉者 和調陰陽之氣也 陽二瀉而陰一瀉者 陽當有餘 而陰常不足也 陽補二而陰補一者 陽可盛而陰不 可盛也

80) 金泰殷·金泰熙 : 前揭書, p.157-158

二日一回 取하고, 三盛時는 一日 二回 취하였는데 《靈樞·終始篇》에 “陽明은 主胃하므로 穀氣가 많아 一日 二回 취할 수 있다” 하였다<sup>81)</sup>. 그러나 《素問·血氣形志篇》에 “太陽은 恒시 多血少氣하고 少陽은 恒시 少血多氣하고 陽明은 恒시 多氣多血하고, 少陰은 恒시 少血多氣하고 厥陰은 恒시 多血少氣하고 太陰은 恒시 多氣少血<sup>82)</sup>한 것”이라 하였으나 鍼治療에 있어서는 六經의 氣血의 多少와 무관하다.

### Ⅲ. 考察

脈은 說文에 派血, 脉 또는 脈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물의 分流와 같이 血이 몸 전체에 고루 퍼져 있어 通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脉은 內部로는 五臟과 相通하며 外部로는 體表와 肢節과 연결되어 內部五臟과 外部體表를 연결하는 氣血의 통로로 人體 內外에 相通하지 않는 곳이 없다. 또한 天地陰陽의 變化에 따라 上下로 浮沈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運行하며 生命活動을 유지시킨다.<sup>83)</sup>

이러한 脈을 診斷하는 脈診이란 血脈經絡에 대한 검사를 뜻한다. 그러한 검사 방법 중 寸口人迎脈診은 寸口와 人迎의 맥을 서로 비교하여 진단하는 比較脈診으로서 脈診의 초창기에 十二經을 모두 診찰하여 脈의 動靜만을 살피던 것이 三部九候脈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寸口人迎脈診을 지나 氣口脈診

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脈診법이다.

黃帝內經에 있어서도 《靈樞·經脈》에 是動則病의 文句 뒤에 各 經脈의 病候와 寸口脈, 人迎脈의 比較盛衰에 따른 寸口人迎脈診法이 있고, 《素問·脈要精微論》, 《素問·陰陽別論》, 《靈樞·終始》《靈樞·禁服》, 《靈樞·五色》, 《靈樞·論疾診尺》 등에 寸口人迎脈診의 의미, 계절에 따른 脈象變化, 平人의 脈候, 針灸補瀉法, 脈候에 따른 針·灸·刺絡·藥物 等の 治療方法등이 記載되어 있다.<sup>84)</sup>

寸口人迎脈診은 三部九候脈診과 寸口脈診의 中間過程에 있는 方法이지만 寸口와 人迎脈의 상대적 편차를 이용해 臟腑의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을 判別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寸口脈診을 能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 두 脈의 比較이기 때문에 오히려 明確하고 간단한 診斷結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辨證方法이 쏟아져 오히려 核心을 파악하지 못하는 愚를 범하기 쉬운 때에 要點을 판단하는데 더 有用하게 쓰일수 있다고 思料된다.

寸口人迎脈診의 部位를 보면 人迎은 人迎脈이고 寸口는 氣口또는 脈口<sup>85)</sup>등으로 쓰여져 人迎은 足陽明經에 속하는 結喉 兩傍의 動脈處로서 足陽明客氣所發處이며 手腕 撓骨 內側의 動脈부위의 搏動部<sup>86)</sup>를 말한다.<sup>87)</sup>

그러나 王淑和등 後代 醫家들은 寸口人迎

81) 洪元植 : 前掲書, p.227

82) 上掲書, p.52

素問 血氣形志篇

夫以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陰常少血多氣 厥陰常多血少氣 太陰常多氣少血 此天地常數

83) 신광순 : 前掲書, p.31

84) 上掲書, p.32

85) 張介賓 : 前掲書, p.57

氣口之義 其名有三 手太陰肺 肺經脈也 肺主氣 氣之盛衰 見于此 故曰氣口, 肺朝百脈 脈之大會 聚于此 故曰脈口 脈出太淵 其長一寸九分 故曰寸口 是名屬三 其實卽一耳.

86) 羅慶燦 : 前掲書, p.28

87) 金泰殷·金泰熙 : 前掲書, p.153

脈의 部位를 寸口脈의 左右를 가리킨다고 하며 左人迎 右氣口 脈診法을 주장한다. 이는 三陰三陽의 十二經脈診斷의 比較脈診의 陰陽脈診法<sup>88)</sup>으로 보면, 左手人迎, 右手氣口脈說은 《難經》의 獨取寸口說의 五行診法의 시대에 따른 部位의 차이점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思料된다.<sup>89)</sup>

寸口人迎脈診에서 寸口脈과 人迎脈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陰陽關係와 表裏關係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陰陽관계는 氣口는 陰을 侯하고, 人迎은 陽을 侯한다는 것을 뜻한다. 寸口는 內部를 주관하고, 人迎은 外部를 주관한다. 兩者가 균형이 맞으면 그 脈의 크기가 서로 같게 된다. 봄과 여름에는 人迎이 약간 크고, 가을과 겨울에는 寸口가 약간 크다. 人迎脈이 홀로 왕성하면 病이 三陽 腑에 있고, 寸口脈이 유독 왕성하면 疾病이 三陰의 臟에 있는 것이다.

表裏관계는 《素問·血氣形志論》에 足太陽과 少陰은 表裏이고 少陽 厥陰이 表裏이고, 陽明, 太陰이 表裏이며 이것이 足陰陽이고, 手太陽과 少陰은 表裏이고 少陽과 厥陰이 表裏이고 陽明, 太陰이 表裏이며 이는 手陰陽이다<sup>90)</sup> 하였으므로 太陽과 少陰, 少陽과 厥陰, 陽明과 太陰은 表裏로 되어 있으니 人迎氣口脈은 一盛은 少陽經과 厥陰經, 二盛은 太陽經과 少陰經, 三盛은 陽明經과 太陰經의 表裏關係로 짝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寸口人迎脈이

四時에 應하고 上下가 相應하여 함께 往來하며 六經의 脈이 結動하지 않고, 本末의 寒溫이 서로 守司하고, 形肉과 血氣가 반드시 균형이 맞는 사람을 平人이라고 한다. 만약 人迎과 寸口脈이 서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病變이 脈象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寸口人迎脈診의 가장 큰 意味는 寸口와 人迎, 즉 陰陽·表裏의 區分에 있다고 생각된다. 人迎穴 부위의 人迎脈과 太淵穴 부위의 寸口脈이 일단 上下의 관계를 이루고 이 두 脈이 의미하는 陽·外部·腑와 陰·內部·臟 등이 이루는 대비에서 寸口人迎脈診의 相對性이 강조된다고 생각된다. 이를 우리의 인체에 적용할 때에는 두 脈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고른 것을 平人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상적인 상태로 정의하는 바 이 平人이라는 개념 또한 寸口脈과 人迎脈의 절대적인 동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天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이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때 진정한 平人이라고 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人迎脈과 氣口脈의 비교에 있어서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盛大하면 病이 足三陽에 있는데 一倍가 大하면 少陽에, 二倍가 大하면 太陽에, 三倍가 大하면 陽明에 있다. 氣口脈이 人迎脈보다 盛大하면 病이 足三陰에 있는데 一倍가 大하면 厥陰에, 二倍가 大하면 少陰에, 三倍가 大하면 太陰에 있다.<sup>91)</sup>

人迎脈이 寸口脈의 四倍가 되며 大脈이고 또 數脈일 때 溢陽이라 하여 陽이 넘쳐 外

88) 吳承玉·吳承艷：脈學釋義，上海，上海中醫藥出版社，1996，pp.8~9

89) 신광순：前揭書，p.35

90) 洪元植：前揭書，p.52

足太陽與少陰爲表裏，少陽與厥陰爲表裏，陽明與太陰爲表裏，是爲足之陰陽也。手太陽少陰爲表裏，少陽與心主爲表裏，陽明與太陰爲表裏，是謂手之陰陽也

91) 上揭書，p.27

六節藏象論：

故人迎一盛病在少陽 二盛病在太陽 三盛病在陽明... 寸口一盛病在厥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 人迎四盛 以上爲格陽... 寸口四盛以上爲關陰... 人迎與寸口俱盛 四倍以上爲關格 關格之脈不能極於天地之精氣即死也。

가 내부를 지켜주므로 外格이라 하며, 寸口脈이 人迎脈의 四배가 되며 大脈이고 또 數脈일 때 溢陰이라 하여 陰이 넘쳐 內가 閉鎖되므로 內關이라 하며 內關은 陰陽이 不通하므로 不治하여 死하게 된다 하였다. 그리고, 人迎寸口脈이 함께 四倍以上으로 될 때 關格이라 하여 陰陽이 따로 떨어져 分散된 상태인 것이고 四倍以上이면 不治하여 死하는 것<sup>92)</sup>이다.

또 脈이 躁動하면 病邪가 盛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人迎脈 혹은 寸口脈이 1,2,3 배로 커지면서 躁動하면 病이 足의 三陽經 뿐 아니라 手의 三陽經에까지 侵入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脈의 비교에 있어서 어느 脈이 어느 정도 큰가에 대한 판단과 그 脈象이 平한지 躁한지를 살펴 三陰三陽의 관계에 배속시키는데 脈의 크기 차이가 크고 脈象이 躁할수록 더 病邪가 盛하므로 治療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寸口人迎脈을 이용한 診斷은 크게 疾病의 진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病의 虛實을 鑑別할 수 있게 한다.

病人의 상태, 動靜을 살피고, 氣口·人迎脈을 診脈하여 脈象이 堅實, 洪大滑하면 病症이 진행되는 것이고, 脈象이 軟弱和緩하면 病邪가 비로소 물러나 회복하는 것의 표현이다.<sup>93)</sup>

92) 上揭書, p. 226

靈樞 終始篇

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 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 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 人迎四盛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脈口四盛 且大且數者 名曰溢陰 溢陰者內關 內關不通 死不治... 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 名曰關格 關格者 與之短期

經脈의 脈象이 實하고 有力하면 精氣가 旺盛하고 邪氣가 衰退하므로 病은 三日前後로 회복되므로 “持氣口人迎以視其脈, 堅且盛此滑者病日進, 脈軟者病將下”라 하였다고 생각된다.<sup>94)</sup>

또 《靈樞·經脈篇》에서는 人迎과 寸口를 經脈의 虛實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寸口는 陰이 되고 人迎은 陽이 되며 臟의 盛虛는 寸口에서, 腑의 盛虛는 人迎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人迎脈이 盛한 것은 陽 측 外에 邪氣가 有餘한 것으로 瀉法爲主로 取穴하고, 氣口脈이 盛한 것은 陰 측 內에 精氣가 不足한 것으로 補法위주로 取穴한 것을 알 수 있다.<sup>95)</sup>

《靈樞·終始篇》에 의하면 寸口人迎脈의 비교에 따라 人迎이 一倍 盛하면 足少陽에 疾病이 있으며, 이때에는 瀉足少陽 補足厥陰하며, 一盛하고 躁動하면 陽中の 陽이므로 手少陽에 疾病이 있고 瀉手少陽 補手厥陰하며, 二瀉一補하고, 一日一回 治療한다. 또 《靈樞·經脈》에 의하면, 人迎이 寸口に 비하여 一倍 盛하면 實證이고, 人迎이 寸口보다 小하면 虛證이다 하였다. 나머지 十一經도 이에 準하여 類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96)</sup>

이 人迎脈이 盛할때는 一盛 二盛 三盛 모두 동일하게 陽經을 瀉하고 陰經을 補하며 二穴을 瀉하고 一穴을 補하며, 氣口脈이 盛할때는 一盛 二盛 三盛에 관계없이 모두 陰經을 瀉하고 陽經을 補하며 二穴을 補하고 一穴을 瀉하고 있다.<sup>97)</sup>

鍼治療 回數는 人迎이 盛하든 氣口가 盛

93) 신광순 : 前揭書, p. 38

94) 上揭書, p. 38

95) 金泰殷·金泰熙 : 前揭書, p. 157

96) 신광순 : 前揭書, p. 39

97) 金泰殷·金泰熙 : 前揭書, p. 158

하든 一盛時는 一日一回 取하고, 二盛時는 二日一回 取하고, 三盛時는 一日二回 취하였다.<sup>98)</sup>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寸口脈과 人迎脈의 偏差를 보완하여 두 脈의 차이를 줄이고 均衡을 유지하는 것에 治療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IV. 結論

以上の 寸口人迎脈診에 대한 文獻的 考察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寸口人迎脈의 部位는 人迎脈이 頸動脈의 搏動處인 足陽明胃經의 人迎穴部位, 寸口脈은 手太陰肺經의 太淵穴部位의 動脈의 搏動處이다.

寸口人迎脈은 脈의 크기를 비교해 1盛, 2盛, 3盛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經絡을 배속하였으며 脈象을 平脈과 躁脈으로 나누어 躁脈인 경우는 病이 足經에서 手經으로 傳變되어서 平脈일 때보다 病이 더 甚하다고 보았다.

2. 寸口脈과 人迎脈의 비교에 있어서 어느 脈이 어느 정도 큰가에 대한 판단과 그 脈象이 平한지 躁한지를 살펴 三陰三陽의 관계에 배속시키는데 脈의 크기 차이가 크고 脈象이 躁할수록 더 病邪가 盛하므로 治療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寸口人迎脈이 四時에 應하고 上下가 相應하여 함께 往來하며 六經의 脈이 結動하지 않고, 本末의 寒溫이 서로 守司하고, 形肉과 血氣가 반드시 均衡이 맞는 사람을 平人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며 天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

여 이에 적절히 적응할 때 眞정 平人이라고 할 수 있다.

4. 寸口人迎脈診은 三部九候脈診과 寸口脈診의 중간과정에 있는 방법이지만 寸口와 人迎맥의 상대적 편차를 이용해 臟腑의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을 判別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 두 맥의 비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고 간단한 診斷結果를 얻을 수 있다.

5. 寸口人迎脈을 이용한 診斷時 두 맥을 비교함으로써 病의 虛實과 진행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補瀉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脈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治療의 목적이다.

以上과 같이 寸口人迎脈診은 상당한 有意性을 가지고 있으나 寸口脈診法으로 이어지는 연결다리 역할만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고 오늘날 많이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초보자들에게도 접근성이 좋고 辨證時에도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바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 V. 參考文獻

1. 裴秉哲 譯 : 今釋黃帝內經素問, 成輔社, 1994
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 李中梓 : 醫宗必讀, 北京, 中國書店出版, p. 卷二, 三, 1987
4. 中央大辭典編纂委員會 : 中文大辭典, 台北, 中國文化大學, 1985, 권7
5. 喻昌 :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6
6. 劉完素 : 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98) 上揭書, p.158

- 1976
7. 扁鵲 : 校正圖註難經, 서울, 翰林社, 卷一, 1974
  8. 福州市人民醫院 :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9. 周一謀·肅佐桃 :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10. 劉孔藤 : 經絡辨證概論, 夏門, 夏門大學出版社, 1989
  11. 洪元植 編著 :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1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上卷, 1987
  13. 洪元植 譯 :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1987
  14. 羅慶燦 : 脈의 發生과 診斷法의 變化,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2
  15. 金泰熙 :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7
  16. 扁鵲 : 難經, 校正圖註難經, 서울, 翰林社, 卷一, 1974
  17. 李東垣 : 東垣醫集·內外傷辯惑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18. 餘之儒 : 脈理會參,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19. 周學海 : 周學海醫學全書·脉義簡摩, 北京, 中國中醫學出版社, 1999
  20. 趙恩儉 :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21.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22. 林之辭 : 四診抉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23. 郭元峰 : 脉如(下卷), 上海, 上海古籍書店
  24. 何夢瑤 : 醫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5. 陳夢雷 : 醫經註釋(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二冊), 1988
  26. 李杲 : 內外傷辯, 東垣十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2
  27. 馬繼興 :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28. 신광순 : 《靈樞·經脈》의 診斷法인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2000
  29. 백정의 : 脈診의 起源과 內經의 脈診에 關한 研究(I), 診斷學會誌, 1988.9
  30. 羅慶燦 : 黃帝內經의 脈理法과 診脈法의 變化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1992
  31. 金泰熙 :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7
  32. 羅慶燦 : 黃帝內經의 脈理論과 診脈法의 變化에 關한 연구, 1993.3
  33. 金泰殷·金泰熙 : 人迎氣口脈에 對한 內經과 後代 醫家說과의 比較 研究, 尙志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內科學會誌, 1994.